갯벌 활용 소득 늘리고 일자리 만들고

신안군 '친환경 개체굴 생산시설' 해수부 공모 선정…국비 10억 확보

신안 자은도에 설치된 개체굴 양식시설. 〈신안군 제공〉

신안군은 '친환경 개체굴 공동생산시설 사업'이 해양수산부 공모에 선정돼 국비 10억원을 확보했다고 7일 밝혔다.

신안군은 국비 10억원에 지방비 10억원을 보태 개체굴 시범 양식사업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신안형 개체굴 양식산업화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먼저 공공주도의 개체굴 양식과 유통판매를 추진하고 2026년까지 민간 영역으로 개체굴 양식 산업을 전환한다.

신안군은 갯벌과 유휴수면을 효율적으로 이용해 해역과 지리적 여건을 충분히 고려한 최적지에 적합한 양식 시설로 노출형 테이블식 친환경 개체굴 공동생산시설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사업을 바탕으로 개체굴 시범양식장의 규모화를 위해 시설물 설치와 종자입식을 신속하게 추진하면 앞으로 2년 내 100t 생산으로 10억원 이상의 생산 유발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신안군은 내다보고 있다.

개체굴 양식학교 운영으로 2022년부터 귀어자·전업어가에게 양식 및 기술 지원을 통해 개체굴 양식 산업화의 안정적인 정착을 이끌어나갈 계획이다.

개체굴은 씨 없는 수박과 같이 생식에너지를 성장에너지로 사용함으로써 성장 속도가 빠르고 비만도가 우수한 것이 특징으로 365일 연중 유통이 가능하다.

신안군은 자체 예산으로 2019년부터 시범양식장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출하를 앞두고 개체굴 전용 유통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땅끝 해남서 첫 모내기…7월 수확 햅쌀시장 공략

지난해보다 한달 빨라

7일 오후 해남 고천암 들녘에서 올해 첫 노지 모내기가 시작됐다. 〈해남군 제공〉

올해 첫 모내기가 7일 해남 고천암 들녘에서 시작됐다. 전년보다 한 달가량 이른 시기로, 노지 모내기는 전남에서 처음이다.

모내기 한 품종은 극조생종인 진옥벼로, 모내기 이후 110일 정도 짧은 생육기간을 거쳐 7월 말에 햅쌀을 첫 수확할 예정이다.

수확 후 8월 초에 바로 2기작 조생종 벼를 심어 10월 말에 수확하는 2기작 재배 실증도 진행한다.

해남군은 최근 기상 이변에 따른 잦은 태풍과 집중호우를 피하고 햅쌀 틈새시장 공략을 위해 벼 조기재배 면적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특히 2기작이 가능한 극조생종 품종을 5㏊가량 조성, 고가의 햅쌀 시장을 선점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모내기 행사에는 육묘상자 병충해 예방 처리와 자율주행 이앙기를 활용한 모내기 시연도 진행됐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안마군도·십이동파도 조류 관측…"항해선박 주의"

국립해양조사원 '유속계 설치' 다음달 26일까지 해수 흐름 조사

국립해양조사원이 영광 안마군도와 군산 십이동파도 해역을 항해하는 선박에 대해 각별한 안전 주의를 당부했다.

국립해양조사원 서해해양조사사무소는 오는 12일부터 5월26일까지 45일 간 안마군도와 십이동파도 사이의 해역에서 조류(潮流) 관측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서해해양조사사무소는 총 6개 지점을 대상으로 관측을 실시할 예정인 가운데 5개 지점은 1일(25시간) 이상, 나머지 1개 지점은 30일 이상 관측을 수행한다.

이번 관측은 일정한 위치에 고정(투묘)한 소형 해양 관측부이를 해상에 띄우고 부이(해수면) 아래 5m 지점에 유속계를 설치해 바닷물이 흐르는 방향(유향)과 세기(유속)를 정밀 조사한다.

관측부이가 설치될 해역은 잦은 어업 활동 등으로 인해 항해하는 선박이 많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서해해양조사사무소 관계자는 "이번 조류관측을 통해 취득할 해양 조사 자료는 과학적 분석을 통해 선박의 안전항해와 경제항로 개척, 조류 예측 정확도 향상 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서해안의 복잡한 조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주요 지점에 대한 관측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영광=이종윤 기자 jylee@kwangju.co.kr

나눔 세상 온정의 손길

신안군4-H연합회 신철우 회장, 장학기금 1000만원 기탁

신안군4-H연합회 신철우 회장이 최근 지역 인재육성을 위해 써달라며 신안군장학재단에 장학기금 3000만원 기탁을 약정하고, 이 중 1000만원을 전달했다. 〈사진〉

신 회장은 "'좋은 것을 더욱 좋게, 실천으로 배우자'라는 4-H 금언을 다시 새기며 신안 발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어 장학기금을 기탁했다"며 "지역 청소년들이 상호 교류하고 사회활동에 참여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신안군4-H연합회는 젊은 영농후계자로 구성된 농업인 단체다. 지(智)·덕(德)·노(勞)·체(體)의 4-H 이념을 생활화하면서 젊고 유능한 핵심 농업인력을 육성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올바른정형외과 박형원 원장, 코로나 극복 성금 1000만원

목포 올바른정형외과 박형원 대표원장이 최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성금 1000만원을 무안군에 기탁했다. 〈사진〉

박 원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코로나19 방역 최전선에서 고군분투하는 의료진들께 항상 감사한 마음"이라고 응원했다.

박 원장은 매년 방글라데시 의료 봉사뿐만 아니라 지난해에는 목포시와 신안군 등에 1억원이 넘는 성금을 기부하는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으로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

/무안=임동현 기자 idh@kwangju.co.kr

전국푸드트럭연합회, 목포소방서에서 나눔 봉사

전국푸드트럭연합회는 지난 5일 목포소방서를 찾아 나눔 봉사활동을 했다.

연합회는 각종 재난 현장과 코로나19 방역 일선에서 분투하고 있는 소방공무원들을 격려하며 과자와 음료 등을 제공했다. 또 근무 중 애로사항 등을 들으며 위로했다.

전경선 연합회 회장과 이혁제 전남도의원은 "각종 재난 현장과 코로나19 방역 최전방에 있는 소방공무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한다"면서 "푸드트럭에서 만든 과자와 음료를 먹으며 잠시나마 여유를 찾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